

세계 수영 동호인 한자리에... 광주의 멋과 맛 알린다

광주세계마스터스수영선수권대회

전세계 84개국 6000여명 참가 경쟁 아닌 화합과 친목의 장 방문객 위한 상품·행사 다채

세계 수영 동호인의 축제인 2019 광주세계마스터스수영선수권대회가 8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광주에서 개최된다.

선수권대회(7.12~28)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1주일간의 준비를 거쳐 축제의 장을 시작한다. 전 세계 84개국 6000여명이 참가하는 대회는 경쟁이 아닌 화합과 친목의 장이다.

◆수영 동호인 축제...1986년 첫 개최 마스터스수영대회는 수영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참가해 연령별로 치러지는 국제수영대회로 1986년 일본 도쿄에서 첫선을 보였다.

처음에는 국가대표들이 출전하는 선수권대회와는 별개로 격년제로 개최했



2019 광주세계마스터스수영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광주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수구 출전팀이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으나, 2015년 제16회 러시아 카잔 대회부터 선수권대회와 함께 열렸다.

참가자격은 국제수영연맹(FINA)에 등록된 각국의 수영연맹을 통해 만 25세(수구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출전이 가능하다.

올해 대회는 84개국 6000여명이 참가하고 우리나라에서도 110여개의 수영 동호회에서 10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선수권대회 경기장에서 그대로 진행 5개 종목으로 기존의 조선대 하이다이빙 경기장을 빼고 선수권대회를 치른 4개의 경기장에서 진행한다.

모든 경기는 무료입장이다.

경영과 다이빙은 남부대 주경기장에서 12~18일 7일간 열린다.

아티스틱 수영은 5~11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수구는 남부대 수구경기장·주 경기장 경영 풀에서 나눠서 진행



2019 광주세계마스터스수영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광주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수구 출전팀이 최종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다. 오픈 워터 수영은 9~11일 전남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에서 펼쳐진다.

◆남도 알리는 개회·폐회식

개회식은 많은 선수와 관람객이 모이는 경영 경기가 시작하는 11일 열린다.

오후 7시 30분부터 80분간 진행되는 개회식은 남부대 '우정의 동산'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다.

주제는 '물의 진동(Wave of Harmony)'으로 남도의 음악이 진동을 일으키고, 그 울림을 따라 세계인들이 모여 하

모니를 이룬다는 내용이다. 폐회식은 18일 오후 7시 10분부터 110분간 5·18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다.

'빛의 축제(Party of Light)'를 주제로 광주가 가진 희망의 빛이 모두를 하나로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외에서 찾는 방문객을 위한 관광 상품과 문화 행사도 풍성하다.

광주시티투어 버스는 6개 노선을 매주 주말에 확대 운영한다.

거리 연극과 도보 중심의 '광주100년 시간 투어', 양림동과 오월광장을 경유하는 '100년 버스', 5·18 기록관과 옛 국군광주통합병원을 경유하는 '5월 버스'를 운행한다.

무등산권, 전통유적지, 예술공연권 등으로 나눠 순환형 시티 버스 3개 노선을 운영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김치 타운, 전통문화관을 경유하는 특별버스 1개 노선을 운영한다.

경기 후 선수들과 동반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상품도 준비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전남도,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나서

보조 60%, 개소당 보조금 12억

전남도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 오는 16일까지 2020년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매장으로 지원 대상은 시군과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

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공익법인이다.

지원 내용은 단독 매장과 층 분리형 매장 설치 공사비다. 농가 레스토랑, 교육시설, 카페 등 부대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올해는 보조 60%, 자부담 40%로 개소당 보조금 12억 원을 지원했다.

/전남 무안=양수영 기자 ysn6313@

장휘국 "경제침략 맞서 역사교육 강화"

(광주시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사진)이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 친일 교육잔재를 청산하고, 역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4일 성명을 통해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행위는 착취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며, 명백한 '경제 침략'이다"며 "과거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길 없는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에 매우 큰 실망감을 느낀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다"며 "역사의 가해자가 사과는 뒤로 한 채 역사의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행위에 우리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8월 중 설립되나

투자 규모·방식 놓고 계획차질

투자자 간 배당금 문제 사실 아냐

노사 상생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설립이 투자 기업의 내부 절차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6월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투자 협약을 맺은 시는 당초 지난달 합작법인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에서 투자 규모와 방식을 놓고 내부 이사회 등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투자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투자 기업별로 사정이 다른 만큼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조정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

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투자 기업별로 내부 정리가 마무리되면 이번 달에는 합작법인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주 간 협약 체결, 합작법인의 정관 확정, 명칭과 대표자 선정, 투자자들의 출자금 납입, 발기인 총회 등을 거쳐 합작법인이 설립된다.

시는 일각에서 합작법인 설립이 지연되는 이유로 제기된 투자자 간 배당금 비율 문제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금융기관 3곳, 기업 29곳 등이 합작법인에 2300여억원을 투자한다.

시는 신설법인의 자기자본금 2300억원의 21%인 483억원, 현대자동차는

19%인 437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투자자를 모집해 마련했다.

총 5754억원의 법인 자본금 중 자기자본금 23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 3454억원은 재무적 투자자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타 금융권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8월 중 합작법인 설립을 마무리하고 올해 하반기 공장 착공, 2021년 양산체제로 들어갈 계획이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설립사업은 합작법인이 빛그린산단에 연 10만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해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을 현대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하고, 정규직 1000여 명을 고용하는 내용이다. /광주=봉채영 기자

전남 귀어 스몰엑스포, 목포서 열린다

귀어·귀촌 바라는 도시민 만나 상담

전남도는 제1회 섬의 날 주간(8월 8~10일)을 맞아 오는 10일 제2회 전남 귀어 스몰엑스포(Small Expo)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귀어 스몰엑스포는 전남도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준비했다.

전남의 우수 어촌계와 귀어·귀촌을 바라는 도시민을 직접 만나는 상담의 장이다.

이번 귀어 스몰엑스포 개최를 위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도시의 귀어귀촌 희망 도시민 300여 명을 초청했다.

목포 고하, 여수 안포, 순천 와온 어촌계 등 50곳에서 홍보부스를 설치해



전남 고흥군은 17일 고흥문화회관에서 귀농, 귀어, 귀촌인, 군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군귀향귀촌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뉴스1

귀어인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성공한 귀어 선배, 우수 수산업 대표, 각 시군 귀어귀촌 담당자 등도 참석해 상담에 나선다.

귀어·귀촌 의사를 밝힌 도시민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에는 '전남 어촌의 밤' 행사를 가족과 함께 개최하고 어촌에서 장단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완도 신지명사십리해변

새로운 관광명소 각광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인기

남해안의 관광명소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이 새로운 관광트렌드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4일 전남 완도군에 따르면 '여름 그리고 힐링'을 주제로 한 해양기후치유 체험 프로그램이 지난달 19일부터 한 달 간 진행되고 있다.

해양기후치유는 청정 해안의 해풍과 해양어로졸, 태양광, 염지수 등 해양기후자원을 활용해 심신의 휴식을 취하면서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지명사십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시마 풀장, 모래찜질, 비치바스켓 체험, 노르딕워킹, 해변요가, 필라테스, 해변 댄스, 명상 등 8종이다.

/전남 완도=봉채영 기자

오늘의 날씨

8월 5일 (월)
음력: 7월 5일

수도권 날씨
37 ~ 26°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39 | 해짐 / 19:37

연천 23/36

동두천 24/36

백령도 23/30

파주 24/35

가평 24/36

인천 26/35

서울 26/37

양평 25/36

수원 26/35

용인 26/35

평택 25/3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